***PRESS INFORMATION***

|  |  |
| --- | --- |
| **보도 일시** | **2024. 7. 18 배포 시부터 보도** |
| **사진 설명** | **LS에코에너지 베트남 생산법인 전경** |
| **문의** | **김광국 과장(02-2189-9597, 010-4306-5788,** [**kimgg@lscns.com**](mailto:kimgg@lscns.com)**) / 뉴스룸(**[**http://news.lscns.com**](http://news.lscns.com)**)** |
| **LS에코에너지, 사상 최대 반기 영업이익 달성**  **■ 영업이익률, 순이익률 사상 최고치, 유럽·북미 수출이 실적 견인**  **■ 미국의 중국산 배제 정책 수혜, UL 인증으로 미국 시장 공략 가속**  **■ 사상 최대 연간 실적 기대, LS전선과 해저 및 희토류 사업 추진**  LS에코에너지(대표 이상호)가 올해 상반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.  LS에코에너지는 올 상반기 매출 4,125억 원, 영업이익 244억 원, 순이익 210억 원을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.  매출은 전년 3,637억 원에서 13% 증가했으며,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112억 원과 12억 원에서 118%와 1,627% 증가했다.  특히, 영업이익은 2023년 연간 실적과 비슷한 수준으로, 역대 분기 및 반기 최대를 기록했다.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도 각각 5.9%와 5.1%로,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.  회사 측은 "유럽과 북미 시장에서 고부가제품인 초고압케이블과 UTP 케이블 수출 급증이 이번 실적을 견인했다"며, "연간으로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대하고 있다"고 밝혔다.  특히 호찌민 생산법인 LSCV에서 생산된 랜 케이블은 미국의 중국산 배제 정책 덕분에 대미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% 이상 증가했다.  LS에코에너지는 최근 알루미늄 지중(URD) 케이블의 UL 인증을 완료하며 미국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. 미국은 중국산 알루미늄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, 중국 외 국가의 URD 케이블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.  또한, LS에코에너지는 LS전선과 협력하여 유럽과 아시아에서 해저케이블 사업 확장과 희토류 밸류체인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. | |